

# 칼빈의 교회론과 구프린스톤 신학의 교회론의 비교연구

홍 철

대신대학교, 역사신학

## 1 서론

20세기는 교회론의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론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교회론들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바른 교회론의 정립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린스톤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찰스 하지와 신약학 교수였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창설자인 존 그레스엄 메이첸과 같은 구프린스톤 신학자들의 교회론이 칼빈주의에서 벗어난 분리주의의 교회론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옳지 않으며 이들이 대표하는 구프린스톤 신학의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과 다르지

\* 논문접수일: 2010. 7. 30

논문수정일: 2010. 10. 19

게재확정일: 2010. 11. 8

않다는 논지 하에 칼빈의 교회론과 구프린스턴 신학의 교회론을 - 찰스 하지와 메이첸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논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교회론과 구프린스턴 신학의 교회론이 교리적 순결의 기초 위에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주제의 관점에서 칼빈의 교회론과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칼빈주의와 구프린스턴 신학의 관계(역사적 배경)

미국에 칼빈주의가 전해지게 된 것은 17세기에 유럽 각국의 개혁 교회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미대륙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620년 이후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민을 간 청교도들과 1710년부터 1760년 사이에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중부 지역으로 이민을 간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계 장로교인들의 이민으로 미국 장로교가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1720년대에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남과 아울러서 장로교회 안에 서약논쟁(subscription controversy)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필라델피아 대회 안에서 조나단 디킨슨은 영국 청교도 요소를 대표하고, 존 톰슨은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계 장로교인들 요소를 대표했다. 그리고 디킨슨은 비서약론의 입장을 대표했고 톰슨은 엄격한 서약론의 입장을 대표했다.<sup>1</sup> 디킨슨은 주장하기를 신조는 무오하지 않으며,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충분한 규칙이라고 하며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약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톰슨의 주장은 잘못된 교리나 신학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1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47-48.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그 때에 장로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했었으나 1729년에 채택안(the Adopting Act)<sup>3</sup>이 맺어짐으로써 분열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문제로 인하여 미 대륙의 식민지 장로교회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식민지 장로교회는 1741년에 구파(Old Side)와 신파(New Side)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분열의 이슈들은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운동에 대한 찬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것에 대한 찬반, 뉴 브런스윅 노회의 목사안수권한 문제, 목사후보생의 교육 자격의 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1758년에 그 두 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근거 위에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the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라는 이름으로 재연합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1차 대각성운동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유럽에서 들어온 계몽주의, 특히 이신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의 교회와 사회는 영적, 도덕적, 문화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서 1787년에 햄든 시드니 대학에서 2차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1801년에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서부 변경 개척지역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선교를 위하여 두 교파 사이에 “연합계획”(plan of union)이라는 교단 합동 계획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목회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19세기 전체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하여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1829년에 찰스 하지는 1,880개 장로교회 중에 600개와 700개 사이의 교회들이 “정규목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

2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48;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267-269.

3 김길성,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68.

리고 그는 계속하여 매해 미국 인구에 대한 목회자 비율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하였다.<sup>4</sup> 게다가 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의 목회자 배출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여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아치발드 알렉산더, 애쉬벨 그린, 사무엘 밀러 등이 주도하여 미국장로교회 총회로 하여금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립목적은 당시 시대조류에 대항하여 이신론 등을 반박하고 성경 및 기독교를 변증할 학문적 능력을 갖춘 경건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sup>5</sup>

그리하여 1812년 8월 12일 초대 교수 아치발드 알렉산더와 3명의 학생과 함께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에 1929년 그레이스엄 메이첸이 2명의 다른 교수들과 29명의 학생들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재조직된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때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형성된 신학을 구프린스턴 신학(Old Princeton Theology)이라고 부른다. 프린스턴 신학은 보수적인 칼빈주의의 한 주요한 표현이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1912년 개교 100주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1,000여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었다. 알렉산더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하고부터 워필드가 죽을 때까지 6,386명의 학생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sup>6</sup> 프린스턴 신학교는 1세기 이상 동안 강력한 칼빈주의를 열정적으로 증언하면서 일관성 있게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세기의 모든 것이 칼빈주의 인간관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칼빈주의 관점에 대항하여 공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그 모든 잘못된 신학

---

4 David F. Wells,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A History of Its Modern Develop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59.

5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24, 65, 67.

6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24.

들과 싸우며 인간 본성의 유약함과 구원의 신적 기원을 비롯하여 역사적 칼빈주의를 꾸준히 선포하였다.<sup>7</sup>

1801년에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사이에 연합계획이 맺어진 후에 많은 회중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장로교회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장로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나 한편 1820년 경에 뉴잉글랜드 신학을 신봉하는 회중교회에서 들어온 목사들을 중심으로 신학파가 형성됨으로써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장로교회 내에 본래 있던 전통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구학파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구학파의 목사들은 장로교의 특색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나다니엘 테일러가 주장한 뉴 헤이븐 신학이 분열의 중요한 신학적 이슈였다.

1837년에 구학파는 장로교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당시 전체의 4/9에 해당되는 연합계획 하에 형성된 신학파 측에 속한 4개 대회들을 축출하였다. 또한 그 구학파의 중심에 프린스틴 신학교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변호한 대표적인 구 프린스틴 신학자들은 아치발드 알렉산더, 찰스 하지, 에이 에이 하지, 벤자민 워필드, 그레스 앰 메이첸 등이다.<sup>8</sup> 그 후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들어온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특히 워필드, 메이첸 등은 강력하게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방어하였다.

여기에서 칼빈주의와 구 프린스틴 신학의 신학적인 연관성, 특히 교회론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장로교의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스코틀랜드-아일랜드계 장로교인들은 칼빈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주도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1710년부터 1760년 사이에 그들 중의 약 20만 명이 미대륙으로 이민하여

7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29.

8 이들에 의해 대표된 구 프린스틴 신학은 특히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를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장로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되었다. 그들은 존 낙스와 그의 후계자들로 부터 상속받은 형태의 장로교에 열렬하게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미국장로교회의 역사 속에 신조를 중요시하며 특히 칼빈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목회자들 및 목회자 후보생들이 엄격한 서약을 할 것을 주장하는 구파(Old Side) 및 구학파(Old School)를 형성하였다.<sup>9</sup> 그리고 이러한 구학파의 중심이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장로교의 교리적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였다. 아울러서 그들은 17세기 제네바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인 프랜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의 신학을 전수하였다. 또한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주장했으므로 그들의 교회론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나타난 교회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837년에 미국장로교의 교리적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뉴 헤이븐 신학을 주장한 신학파를 축출한데서 그들의 칼빈주의적 교회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칼빈의 교회론과 구 프린스턴 신학의 교회론의 비교 목적을 위하여 그 중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들로서 찰스 하지와 그레스 앰 메이첸의 교회론을 칼빈의 교회론과 비교하고자 한다.

### 3 칼빈의 교회론

칼빈은 개신교회의 일치를 위해 힘쓴 면도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결을 강조한 종교개혁자였다. 『기독교 강요』 제4권을 교회론에 배당하였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로마 교회가 말씀 전파와 성례의 집행이라는

---

9 C. Gregg Singer, "The Scotch-Irish in America," in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ed. W. Stanford Rei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270, 277-278.

교회의 두 가지 표지 면에서 거짓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할애하였다.

칼빈은 이신칭의와 같은 근본 교리에 있어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본 교리가 잘못되고 성찬이 잘못된(화체설을 비롯하여)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로 간주하고 개신교 종교개혁을 정당화하였다.

개혁주의 장로교 제도는 칼빈의 신학, 특히 칼빈의 교회론에 기초한다. 칼빈의 신학 중에서 교회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의 저술들을 통하여 교회론을 비롯한 그의 신학을 정립한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칼빈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주장을 하고<sup>10</sup> 반면에 개신교회는 참 교회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두 개의 표지를 제시하였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성례의 집행이었다. 나아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이러한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사활을 건 교리논쟁 또는 신학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이러한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하나님의 법’ 사상을<sup>11</sup>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회 정치를 바르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였다.<sup>12</sup>

또한 존 칼빈이 1536년에 출간한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59년에 출간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각각 나타난 교회론에는 차이가 있다. 초판에서는

10 기독교의 근본교리와 성례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Cf. 배광식, 『장로교 정치사상사』(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8), 40.

11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예배와 교회 정치의 근거가 된다는 사상이다.

12 그러므로 칼빈이 장로교 정치제도를 성경적으로 확립한 근본 동기는 신학적인 동기였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가시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sup>13</sup> 그러나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 그러나 최종판에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여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견적 교회”라는 주제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마 22:30)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사야와(사 37:32) 요엘이(욘 2:32) 말한 것과 같다. 에스겔도 그들과 같은 뜻으로, 하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겔 13:9) ...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은총과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를 그의 양떼에 국한시킨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sup>14</sup>

1536년에 존 칼빈이 약관 26세에 저술한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빈의 교회관에 따른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총집합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칼빈은 불가시적인 교회만을 강조했고 당시에는 칼빈은 목

13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Cf.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41-54.

1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 신복운 · 이종성 ·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下)』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3-14.(IV. i. 4.)

회 경험이 전혀 없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만 말하였다. 『기독교 강요』 초판 이후 칼빈은 1539년에 증보판을 발간하고, 1543년에 수정 증보판을 발간하고, 1550년과 1559년에 두 차례 더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칼빈은 그의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중에 “교회의 본질에 관한 오류들”이라는 항목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교회관에 반대하여 교회의 불가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어떤 가시적 외형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외형은 그들이 바보스럽게 흠모하는 저 외적 장엄함 속에 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그는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칼빈은 로마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관은 “영혼을 죽이는 도살장이요 교회의 선동자요 파멸자이며 파괴자”라고 하며 비판하였다.<sup>16</sup>

이 헌사는 『기독교 강요』의 초판과 아울러서 최종판에도 동일하게 서두에 실려 있다. 이 헌사의 내용을 비롯하여 초판에서는 교회의 불가시적인 면만 강조했으나 최종판에서는 불가시적인 면과 아울러서 가시적인 면도 강조했다. 칼빈이 가시적 교회를 강조하게 된 것은 그의 목회 경험과 더불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시적 교회의 양떼에 대한 책임을 자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교회의 표지는 똑같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 가지로 말했다.

특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오는 사도신경 해설의 넷째 부분 중에서도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의 내용을 해설하면서

1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초판]』(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60.

16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63.

그의 교회론을 서술한다. 그는 거룩한 공교회, 즉 교회는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라고 하였다.<sup>17</sup>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택이 구원의 기초이며 교회의 기초라고 하였다.<sup>18</sup>

그러나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정죄되었는지 인간은 모른다고 하였다.<sup>19</sup> 또한 누가 선택된 자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판단을 침범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1</sup>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제6장 14절부터 34절까지에서 “교회의 권세”라는 주제 하에 교회론을 논한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에서 특히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교회의 두 가지 표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법령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사람들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을 비판한다.<sup>22</sup>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빈의 교회론은 로마 교회의 교회론을 비판하고 교회의 불가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주로 교회의 표지들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 논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142.(II. xxi.)

18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144.(II. xxiii.)

19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145.(II. xxiii.)

20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146.(II. xxv.)

21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149-50.(II. xxvii-xxviii.)

22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354-56.(VI. xiv.)

이것은 인간 정신이 창안해 낸 모든 것을 거부하고(그것이 어떤 두뇌에서 고안된 것이든지 간에),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들만을 강력히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법령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sup>23</sup>

그러나 1559년에 출판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칼빈은 불가시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참 교회를 거짓 교회를 비교하고 상세히 논했다.<sup>24</sup> 또한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하였다. 칼빈은 초판부터 최종판까지에서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의 집행 두 가지로 말하였다.(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칼빈은 1541년에 『제네바 교회법』을 통하여 교회의 규범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목사, 교사(박사), 장로, 집사의 네 직무였다. 따라서 칼빈이 장로교회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공헌은 성경에 입각한 장로교 정치제도의 확립으로서 그 중에서도 대의제 원리와 직제론이었다. 칼빈은 담전

23 Calvin, 『기독교 강요[초판]』, 361.(VI. xvi.)

24 『기독교 강요』 제 4권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칼빈이 얼마나 상세히 논하였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그의 교회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개혁주의 장로교 정치제도가 칼빈의 신학, 특히 그의 교회론에 기초한다는 사실의 중요한 의미가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리와 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후일에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메이첸을 포함한 구 프린스톤 신학자들의 교회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때 성경적인 교회정치제도로서의 장로교 정치제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Cf. 황정욱, 『장로교회사 I: 개혁파 교회의 역사와 신학』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13-14.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정치를 잘 하기 위하여 장로교 정치제도를 성경적으로 확립했기 때문에, 신학이 잘못되면 그 존재 목적이 상실되고 장로교도 더 이상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세계교회협의회(WCC) 형태(type)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붕괴되고 만다.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파의 차이나 심지어 종교의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 신학, 선교 등은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5:17절에 근거하여 장로를 목사를 보좌하는 직무로 규정했다.

그러한 교회정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정치 제도로서 귀족제도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대의제 원리에 입각한 장로교 정치제도를 확립하였다. 칼빈은 독재를 경계하였지만 그보다도 무질서를 더 경계하였다. 그러므로 회중들이 직접 교회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칼빈은 성경에 입각하여 장로교 정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스트라스부르에 망명 기간 중 마틴 부처를 비롯한 다른 개혁자들로부터 배운 바에 근거하여 장로회주의를 더욱 성경적으로 발달시켰다.<sup>25</sup> 칼빈이 장로교 정치제도를 성경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적은 1541년에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후에 저술한 『제네바 교회법』(*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urch of Geneva*)이었다. 이 저술을 통하여 그는 교회에 필요한 네 가지 직제로서 목사, 교사(박사), 장로, 집사를 열거하고 각각 그 임무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장로법원(consistory)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히 칼빈은 장로교 정치제도의 직제론을 확립하였다.

목사는 치리도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이다. 교사(doctor)는 오늘날의 신학 교수와 같은 직책으로서 전체 교회를 신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직제이다.<sup>26</sup> 장로는 목사를 보좌하여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롬 12:8; 고전 12:28; 딤후 5:17). 집사의 임무는 물질을 모아서 관리, 봉사, 구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네바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품을

25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이 면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26 교사의 임무는 성경해석이며,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바른 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cf.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4. 3. 4. 이하 Calvin, *Institutes*, 권, 장, 절로 표기.

나누어주는 집사와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의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다. 장로법원(consistory)은 12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그 임무였다. 그들은 제네바 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생활을 감독하였다.

특히 장로교 정치제도 확립에 관한 칼빈의 저술은 『제네바 신앙고백서』(1536년 11월에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신앙고백서 18항과 20항에 장로교 정치제도의 근본원리가 나온다.<sup>27</sup>), 『기독교강요』(최종판은 네 번째 증보판이다. 최종판 제4권에서는 직제론을 포함한 교회론을 다룬다.), 『제네바 교회법』(1537년과 1541년에 작성된 것들 중에서 특히 스트라스부르에서의 망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1541년에 작성된 것이 중요하다. 이 교회법에서는 주로 직제론과 치리제도를 다룬다.)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의 본질로서의 불가시적인 교회가 현실에 나타난 것이 가시적 교회이며 그러한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한 결코 완전할 수 없지만 동시에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신자의 어머니’<sup>28</sup>, ‘그리스도의 몸’<sup>29</sup> 등으로 부르며 가시적 교회의 목회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그는 교직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직분을 중요시하여 직분론을 확립하였다. 직분자들이 각각 자기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성경에 입각하여 장로교 정치제도라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정치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27 배광식, 『장로교 정치사상사』, 102-4.

28 Calvin, *Institutes*, 4. 1. 4.

29 Calvin, *Institutes*, 4. 1. 2.

아울러서 그는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으로 보았다.<sup>30</sup> 그리고 교회는 말씀 선포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으로 보았다.<sup>31</sup> 그러므로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개신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에큐메니칼 신학자였지만, 칼빈의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말씀 진리와 근본교리의 순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정통 교리와 말씀 진리를 희생시키는 일치의 노력을 칼빈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나의 역사적 실례를 든다면, 교회의 일치는 교리의 순결에 기초하고 있다는 칼빈의 사상이 잘 나타나는 예가 『취리히 합의』이다. 칼빈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지들 중의 하나인 말씀의 전파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가시적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거나 그 유지를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여기에서 그 실례를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루터가 죽은 후에 개신교 전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개신교 전체의 일치를 위하여 힘썼다. 이로 인하여 그는 ‘에큐메니칼 신학자’, 혹은 ‘일치와 연합의 신학자’로 불렸다.

그는 제네바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는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개신교 전체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는 관대하였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 운동 전체의 전략이 그의 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즉, 트렌트 공의회 후에 반종교개혁으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더욱 더 강력하게 대응

30 Calvin, *Institutes*, 4. 1. 9-12.

31 Calvin, *Institutes*, 4. 2. 4.

32 Weber, 『칼빈의 교회관』, 112, 119-121.

하기 위하여 개신교의 일치를 위한 칼빈의 노력은 더욱 열정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칼빈은 교회 연합의 두 가지 원리를 주장하였다. 첫 번째 원리는, 보편교회 또는 개신교 전체 교회와 지역 교회를 구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교회의 자유와 지역교회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원리는, 교회의 하나됨은 기본적 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여기에서 ‘근본적인 신앙조례’가 나왔다. 보편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교리의 일치만을 요구했다. 칼빈은 이 근본 교리들이 어디에서 성립하는지를 거의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 근본 교리에 기초한 것은 분명히 하였다.<sup>34</sup> 칼빈이 근본 교리들을 정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문병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칼빈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의 권징(*disciplina ecclesiae*)을 다루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성도들이 교회를 썩게 만들 때에는 꼭 교회의 머리에 불명예를 안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가르침이나 교리는 교회에서 배척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sup>35</sup>

계속해서 『취리히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스위스 개혁 교회의 일치를 위해 약 10년의 협상 끝에 1549년에 취리히 측과 『취리히 합의』(또는 『티구리누스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취리히 측과

33 Weber, 『칼빈의 교회론』, 113.

34 Weber, 『칼빈의 교회론』, 110-118.

35 문병호, “칼빈의 교회론: 기독교론·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한국장로교회의 합동운동』, 서기행·홍정이 편 (서울: 도서출판 새한, 2009), 193-194.

성만찬에 대한 견해의 조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치를 얻게 된 결과로서 당시 불령거가 지도하는 취리히 측과 『취리히 합의』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루터파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칼빈을 츠빙글리와 같이 ‘성례론자’ 또는 ‘성만찬론자’ 라고 불렀다. 그리고 함부르크의 요아킴 베스트팔이 칼빈을 공격하며 논쟁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성만찬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칼빈은 이에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존 아라스코가 인도하는 런던의 피난민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후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루터파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sup>36</sup>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순수한 근본적인 교리의 변질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교회론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구프린스텐 신학자들인 찰스 하지와 존 그레스엄 메이첸의 교회론을 살펴 보고자 한다.

## 4 구프린스텐 신학의 교회론

### 4.1 찰스 하지의 교회론

찰스 하지는 “신앙의 규칙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다루면서 개신교의 교회론을 다루었다. 그리고 하지는 교회의 본질에 관해 논하면서 첫째, “본질상의 교회는 외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둘째, 성령이 안에 거하는 참신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셋째, “교회의 속성, 특권, 그리고 약속들은 “하나님의 참백성들, 즉 참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다.

36 Weber, 『칼빈의 교회관』, 208-210.

넷째, 참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구속의 약속의 후사들이 된다...

개신교인들은 땅 위에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참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보편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떤 하나의 외적 단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예배와 상호 사랑과 관심을 위해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어떤 특권들과 약속들이 이런 결합체와 단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 그들은 그 자격과 의무들이 성경 속에 규정되어 있는 직분들을 소유하거나 소유해야 한다는 것, 이런 기독교 조직체 즉 가시적 교회는 항상 있어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sup>37</sup>

그러나 하지는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외적 단체들 전부가 “차례로 신앙을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게 성취시키는 모든 약속들을 도외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인도와 구원을 약속하는 교회”는 신앙에 입각한 참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부인하였다.<sup>38</sup>

찰스 하지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참백성들 또는 참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였다. 그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

37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김귀탁 역, 『조직신학 I』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178-179.

38 Hodge, 『조직신학 I』, 179-180.

그러나 최홍석 교수는 교회의 정의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택된 자들의 모임’ 또는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은 아직 실재화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단지 외적인 조직이나 단체와 같은 외형적 면들을 가리키게 되면 불가시적인 본질적인 면과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참된 신앙의 소유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양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서 교회의 정의에 ‘믿는 자들의 모임’(coetus fidelium)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9</sup> 이 견해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찰스 하지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찰스 하지의 교회론이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난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는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그러한 총회의 밀접한 관계를 항상 주장하였다.

찰스 하지는 나다니엘 테일러의 뉴헤이븐 신학에 나타난 구원론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규정하였다. 테일러는 유니테리언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정통 칼빈주의를 수정하고 원죄를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에 2차 대각성운동이라는 부흥운동을 돕기 위하여 원죄를 부인하고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는 속죄론에 관하여 찰스 하지와 격렬한 논쟁을 하였다. 그 결과 1837년에 뉴헤이븐 신학의 신학적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되어 미국 장로교회는 구학파와 신학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이때 이러한 칼빈주의에서 멀리 벗어난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인하여 미합중국장로교회에서 구학파가 신학파를 축출하였을 때 찰스 하지를 비롯한 프린스턴 신학자들

---

39 최홍석, 『교회론』(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89-92.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기홍은 그의 저서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에서 성경무오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찰스 하지의 교회관이라고 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것은 찰스 하지의 교회론을 오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찰스 하지는 교직자들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을 지지하였는데 그 신조들에 나타난 교회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절, 5절에 나타난 교회론은 결코 어떤 참신자들만의 모임을 교회로 정의하지 않으며 가시적인 현실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sup>41</sup> 찰스 하지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은 교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 4.2 J. G. 메이첸의 교회론

메이첸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목사들 및 지도자들의 서약(subscription)을 강조했다. 교회에서 적어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사들 및 지도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동의하고 그에 일치하는 내용만 가르치겠다고 서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유럽의 교회는 국가 교회이지만<sup>42</sup> 미국 교회는 교파 교회이다. 미국 헌법에 국가와 교회 분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sup>43</sup> 이로 인해 미국 교회는 국가

40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아멘서적, 1992), 72.

41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406-417.

42 남유럽의 천주교가 국교인 국가들 외에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루터교가 국교이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국교이다.

의 간섭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교회들은 재정을 비롯한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을 쏟고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 미국 기독교의 특징은 영적인 큰 위기들을 비롯하여 대략 매 10년마다 부흥운동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운동들의 영향으로 인해 선교와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 교회들의 특색인 자원주의(voluntarism)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파 교회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메이첸 박사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메이첸은 교회 지도자들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을 강조한 사람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나타난 교회론이 바로 메이첸의 교회론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메이첸의 교회론을 재세례파의 교회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메이첸 박사의 교회론은 특히 그의 저서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의 제7장<sup>44</sup>에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을 비롯한 자료들과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첸의 교회론은 참 믿음이 없는 평신도들 또는 성경무오를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진실되어 서약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배제하는 교회론이 아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신자들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재세례파의 교회론이 아니다. 그는 전도의 중요성

---

43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는데 있어서 끼친 두 가지 큰 영향은 청교도주의(Puritanism)와 계몽주의(Enlightenment)이다. 국가와 교회 분리 조항은 특히 계몽주의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4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김길성 역, 『기독교와 자유주의』(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4), 147-170.

을 강조했다.<sup>45</sup>

그러나 그는 현대 교회의 고민과 미약의 원인은 평신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불충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부진의 원인’ 이라고 하였다.<sup>46</sup>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요구하기를, 교리적 차이는 배제하여 잊혀두고 기독교 봉사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할 것을 요구한다.<sup>47</sup> 그러나 메이첸은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편협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sup>48</sup>

또한 신조에 대한 전념을 편협하다거나 관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sup>49</sup> 특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같은 근본교리에 관한 문제일 때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메이첸 박사의 주장을 부당하다거나 분리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이 문제를 평신도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시에 한 선서를 어긴 교직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평신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자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지금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어떻게 교회의 평신도 자격을 성실히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놀라움에서 고민하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게 아니다. 이같이 고민하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 교회는 풍부한 우정과 도움을 지원한다. 그런 이들을 퇴출하는 것은 죄악이라 할 것이다.

45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48, 160.

46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49.

47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1-152.

48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2.

49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3.

이 혼란한 시대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교회의 봉사를 통해 그들이 위안과 도움을 받게 하소서!”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이 약한 이들이나, 의혹으로 고민하면서도 열심히 추구하려는 이들과는 크게 다른 자들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려는 자들은 평신도가 되려는 이들이 아니라, 교직자의 지위를 얻으려는 자들이다. 배우려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 주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지식의 소유를 자랑하며 자기들이 선서한 신앙고백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려고 교직자의 지위를 구하는 자들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헌법적인 질문이 사문화했다고 생각하는 관습이 팽배하며, 각종 심적인 보류 선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물론 원래 의미를 전체적으로 뒤집는 것을 뜻하는) 등의 변명이 구구하다.<sup>50</sup>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조직된 교회의 교직자가 되기 위하여 정직하지 않은 신앙 선서를 하였다.<sup>51</sup> 메이첸은 자유주의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안수 서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불신앙을 속이고 부정직한 안수 서약을 하고 복음적인 교회의 교직자가 되어서 그 복음적인 교회가 그 위에서 있는 성경무오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신조들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적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이첸의 가르침과 주장과 그의 활동에서 나타난 -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를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과 노력을 한 후 그 교단에서 축출된 - 그의 교회관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가 그러한

50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4.

51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5.

복음주의 교회로부터 자유주의자들이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은 “매우 솔직하고 공명정대해질 것”을 위한 것이다.<sup>52</sup>

또한 그는 자유주의자들의 지성과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직면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끝수까지 반기독교적인 자유주의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공격당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3</sup>

그리고 그는 이러한 때에 기독교신자들과 특히 교회의 직원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하였다: (1) “그들은 지적,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2) “교회의 제직원은 목사 후보자 자격결정에 있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 “모든 교회의 직원은 각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 (4)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독교 교육의 부흥이 있어야만 한다.”<sup>54</sup>

이어서 메이첸은 자유주의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현대에 요구되고 있다. 현대는 편안과 환락의 시대가 아니라, 열성과 기도로 일해야 될 시대이다. 끔찍한 위기가 분명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복음적 교회의 교직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대군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견해의 대립을 단지 성경해석상의 차이인 듯이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토대에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 침입했다.<sup>55</sup>

그리고 그는 이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52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56.

53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3.

54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3-167.

55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7.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연구로 복귀해서 2세기에 기독교회가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중세 율법주의와 비슷한 이교주의가 기독교란 이름 아래 교회 안에 침입한 것, 즉 현대 자유주의와 투쟁하여 십자가 복음을 지키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6</sup>

메이첸은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sup>57</sup> 그리고 그는 두 가지의 기독교인의 연합을 구별한다.<sup>58</sup> 그리고 그는 참 '성도의 교제' 인 교회에 대한 갈망에 대해 말했다.<sup>59</sup> 이어서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쟁에서 피할 곳은 없는가? 누구든 인생의 싸움을 예비할 수 있는 안식처는 없는가? 백성을 백성에게서, 종족을 종족에게서 분열시키는 모든 것을 잠깐이나마 잊고 인간의 자기과시를 잊고 전투의 열기를 잊고, 산업전의 곤혹스런 문제를 잊은 채, 십자가 아래 차고 넘치는 감사의 기쁨 속에 연합되기 위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장소는 없는가? 만약 이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일 것이다. 또한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는 지친 세상을 소생시켜줄 강물이 흘러나오리라.<sup>60</sup>

메이첸에게 있어서 이러한 진정한 기독교인의 연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연합이 교리적으로 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36년에 메이첸이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에서 나와서 미국장로교회(PCA)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메이첸이 미합중국장로교회가 배도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메이첸은 목사들이 안수 시에 하는 서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

56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8.

57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9.

58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9.

59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9.

60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70.

다.

그리고 자유주의 교직자들은 미합중국장로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안수 시에 행한 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긴 안수 시 서약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자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 무오한 규칙이라는 것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이 성경에 가르쳐진 교리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고 채택한다고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선언자들(Auburn Affirmationists)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들’(essential and necessary articles)에 대한 1729년에 미국 장로교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통과된 채택안(Adopting Act)의 타협은 각자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단지 이론(theories)이라고 하였다. 그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후대에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서약논쟁(subscription controversy)에 대한 찰스 하지(Charles Hodge), 존 그레스엄 메이첸(J. Gresham Machen) 등의 입장은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들에 나타난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에 대한 서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메이첸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확신 있는 서약을 하기 위해 8년을 연기하며 고민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61</sup> 그리고 특히 교역자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서약과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은 제네바의 전 시민들이 신조에 서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에드워드 카넬은 이 문

---

61 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Grand Rapids: Eerdmans, 1954), 197.

제에 있어서 메이첸을 분리주의자로 규정하였으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메이첸은 당시 미합중국장로교회 총회의 요직에 있었던 어떤 선언에서명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주도적 역할로 인하여 축출되었다는 데 그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가 미합중국장로교회로부터 축출되기 전에 한 활동들은 1923년에 출간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비롯한 저술들과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Seminary)를 설립한 것과 1933년에 장로교회외독립선교부(IBPFM)를 조직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재판을 통해 목사직이 정직되어 축출된 후에 그는 미국장로교회(PCA: 나중에 정통장로교회로 교단명이 바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그는 결코 분리를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속한 미합중국장로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이다.

## 5 칼빈과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교회론에 관한 최근 연구

여기서 필자는 본 논문의 논지와 관련된 세 학자들의 최근의 연구들을 - 각각 칼빈, 찰스 하지, 메이첸에 관한 - 검토하고자 한다.

### 5.1 칼빈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박경수 박사는 그의 논문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1541)과 ‘취리히 합의’ (1549)를 중심으로”<sup>62</sup>

---

62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1541)과 ‘취리히 합의’ (1549)를 중심으로,”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연구』 제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07-228.

에서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에 나타난 교회일치를 위한 칼빈의 입장과, 하인리히 불링거를 비롯한 취리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칼빈 사이에 이루어진 성만찬 문제에 관한 상호합의인 『취리히 합의』에 나타난 교회일치를 위한 칼빈의 입장을 다룬다. 그리고 『취리히 합의』는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실질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하며 본 논문을 통하여 칼빈의 교회일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통찰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sup>63</sup>

또한 박경수 교수는 칼빈을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개혁자”로 보고 루터와 츠빙글리의 중간에서 어떻게 그들의 견해들을 조정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sup>64</sup> 그리고 『취리히 합의』는 “개혁교회가 이룬 일치운동의 성과로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5</sup> 계속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것은(취리히 합의) 개혁교회의 교회일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실제로 교회일치를 염원하는 칼뱅의 열정은 그의 시대에는 특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칼뱅은 교회일치의 신학자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sup>66</sup>

그러나 박경수 교수는 『취리히 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 쪽 면만 보고 또 다른 면은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칼빈이 개혁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개신

63 박경수, “성만찬론,” 209.

64 박경수, “성만찬론,” 208.

65 박경수, “성만찬론,” 223.

66 박경수, “성만찬론,” 227.

교회 전체의 일치에 관점에서 볼 때는 개혁파와 루터파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의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를 통해 칼빈은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양식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체설뿐만 아니라 루터의 공재설도 거부하였다. 또한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공간적, 또는 육체적 임재 개념을 반대하였다.<sup>67</sup> 그리고 『취리히 합의』로 인해서 제2의 성만찬논쟁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서 개신교회 전체의 일치는 이룰 수 없게 되고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개혁파와 루터파의 구별은 더욱 명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루터파와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리히 합의』가 체결된 후에 요아킴 베스트팔을 비롯한 루터파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를 공격했을 때 그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취리히 합의』의 올바른 평가는 단순히 칼빈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노력은 교리적 순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박경수 교수는 칼빈의 성만찬론과 관련하여 『취리히 합의』를 다루면서 일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그것이 칼빈의 교리의 순결을 위하여 힘쓴 면을 나타낸다는 것은 간과한다고 사료된다.

## 5.2 찰스 하지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최근에 김길성 박사는 “찰스 하지의 교회론”이라는 주제 하에 은혜의 수단에 관한 하지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발표했다.<sup>68</sup> 찰스 하

67 박경수, “성만찬론,” 212, 221-22.

68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찰스 하지의 신학』, 길자연, 강웅산 편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143-168.

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신구약성경 66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69</sup>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의 성취에 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sup>70</sup>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71</sup> 그는 가시적 교회는 전적으로 증생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sup>72</sup>

아울러서 그는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하여 칼빈과 같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sup>73</sup> 이와 관련하여 김길성 박사는 찰스 하지가 주장하는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미를 다루면서 그것은 “장소적이 아니라 영적이며, 감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에 대한 것이며, 근접함의 임재가 아니라 효력 있는 임재”<sup>74</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길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진술한다:

그러므로 핫지는 개혁신학의 표준문서들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성례에서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임재하시되, 육체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장소적 근접함이 아니라 효과적인 작용의 의미로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신자들은 그를 받되, 입으로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다.<sup>75</sup>

결론적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김길성 박사는 정리하기를, “핫지는 주의

---

69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Grand Rapids: Eerdmans, 1872; reprint, 1973), 476-478.

70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466-468.

71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472-473.

72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548.

73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650.

74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160.

75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161.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실제로 임재하시되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라고 하였다.<sup>76</sup> 이러한 김길성 박사의 지적은 찰스 하지가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양식에 관하여 칼빈과 같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길성 박사는 찰스 하지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자주 인용하는 “구 프린스턴 신학전통에 충실한 신학자”라고 하였다.<sup>77</sup> 그는 계속해서 구 프린스턴 신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 신학전통의 사상적 배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구 프린스턴 신학전통의 맥락에 비추어 연구해야 할 것이 사료된다. 동시에 그 시대를 휩쓸고 있던 현대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조류를 배경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78</sup>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김길성 박사의 “찰스 하지의 교회론” 논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찰스 하지의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과 “은혜의 수단”에 속하는 여러 주제들 - 말씀, 세례, 주의 만찬, 기도 - 에 관해서도 같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사료된다.

### 5.3 메이첸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김기홍 박사는 그의 저서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에서 찰스 어드만과 메이첸의 교회론을 비교 연구했다. 메이첸은 그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

76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166.

77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165.

78 김길성, “찰스 하지의 교회론,” 168.

이었고 그가 믿는 신앙과 신학사상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미합중국장로교회에서 행동한 것을 살펴보면 그를 분리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드만은 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리적 무관심주의자였고 자유주의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교회론에도 각각 드러났다. 어드만은 교회에서 교리의 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교리적 무관심주의를 나타내며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포괄주의(inclusivism)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메이첸은 교리적 엄수주의를 취했다. 이것을 김기홍 교수는 배타적 교회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메이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그것은 분리주의가 아니고 칼빈의 교회론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철저한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롱필드(Longfield)는 메이첸과 어드만의 차이에 관하여 말하고, 단순히 말하여 그들 사이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교리에 대한 다른 태도 때문이었다고 하였다.<sup>79</sup> 그리고 메이첸은 자신과 어드만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교리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드만의 문제점은 완전히 그들의 교회의 교리체계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공통된 주장을 하려고 하며, 그러면서도 그는 그 교회의 교리체계를 배후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메이첸 자신은 그렇게 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독교 교리는 복음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동질이며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순전한 불충성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0</sup>

79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이은선 역, 『미국장로교회 논쟁』 (서울: 아가페, 1992), 206-207.

80 Longfield, 『미국장로교회 논쟁』, 206-207.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드만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드만은 진정한 보수주의자, 진정한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드만은 복음전파를 강조했지만<sup>81</sup> 자유주의자들과 타협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을 간과하고 무시했다. 그는 논쟁을 싫어했다. 그리고 사랑, 기쁨, 유머, 상식 등이 신학적인 토의들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sup>82</sup> 그는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는 통합과 일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썼지만 자유주의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지키지는 못했다. 그는 바른 복음보다도 거짓되었을망정 평화와 일치를 선택했다.

어드만은 메이첸, 매카트니와 같은 전투적 보수주의자들과 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불일치하였다.<sup>83</sup> 어드만의 교리적 확신과 그의 실천은 서로 달랐다. 그는 교리적 확신들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지 않았다.<sup>84</sup>

김기홍 교수의 메이첸의 교회론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메이첸이 제시한 교회론은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85</sup> 그리고 메이첸의 교회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의 미합중국장로교회에는 자유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sup>86</sup>

81 Longfield, 『미국장로교회 논쟁』, 223.

82 Longfield, 『미국장로교회 논쟁』, 217.

83 Longfield, 『미국장로교회 논쟁』, 224.

84 Longfield, 『미국장로교회 논쟁』, 224.

85 Machen, 『기독교와 자유주의』, 163.

86 또한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전쟁의 여파로 교단내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

“단결과 평화”를 강조하는 찰스 어드만의 교회론은 교리적 무관심주의로서<sup>87</sup> 따를 수 없는 입장이었다. 로어크는 메이첸의 참된 관심을 잘 지적했다. 그러면 로어크가 지적한 대로 가르치는 직을 통하여 교리적으로 참된 장로교회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관심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sup>88</sup> 로스 스티븐슨, 찰스 어드만, 프레데릭 뢰처 등은 당시에 중도파 보수주의를 이끌고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하고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였다.<sup>89</sup>

김기홍 교수에 의하면 신조주의가 배타적인 교회론의 원인이요 근본주의의 기준이다.<sup>90</sup> 또한 김기홍교수의 논지는, 프린스톤 신학자들의 교회론은 신조주의로 인한 배타적인 교회론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찰스 어드만이 보수주의자였지만 그의 평화와 일치를 강조하고 관용과 포용을 강조한 포괄적 교회론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드만의 교회론은 교리에 무관심한 교회론으로서 롱펠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미합중국장로교회가 교리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큰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기홍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김기홍 교수는 메이첸의(또는 구 프린스톤 신학의) 교회론을 반대하는 것이다.<sup>91</sup> 그는 어드만의 포괄적인 교회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는 교리적인 일치보다는 자유주의자들도 포용하고 연합을 이루는 교회론이 바른 교회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어드만의 교회론이 아니라 메이첸의 교회론이 명백히 칼빈의

---

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다.

87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서울: 아멘출판사, 1992), 100-101.

88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81.

89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81.

90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46.

91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98.

교회론과 일치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칼빈의 교회론과 찰스 하지, 메이첸과 같은 구프린스틴 신학자들의 교회론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 교회로 간주하고 종교개혁을 정당시한 칼빈의 교회관이나, 1837년에 미합중국장로교회에서 신학파의 축출을 주도한 찰스 하지의 교회관이나, 미합중국장로교회의 논쟁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메이첸의 교회관이 모두 같은 칼빈주의의 교회관이다.

여기에 개입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먼저 칼빈은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탈하고 성례가 거짓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 교회로 간주하였다. 또한 나다니엘 테일러의 뉴 헤이븐 신학은 현대판 펠라기우스주의로서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서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고등비평에 의해서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복음에서 떠났으므로 말씀의 전파라는 교회의 표지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이첸 박사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찰스 하지의 교회론을 칼빈의 교회론에서 벗어났다든지 또는 메이첸의 교회론을 분리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찰스 하지와 메이첸의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론과 일치하는 구프린스틴 신학의 교회론으로서 정당한 개혁주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교회론의 공통점은 개혁주의 교리적 순결의 기초 위에서 일치(가시적인 면에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2차 제네바 목회(1541-1564)를 하면서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그의 저술들을 통하여 가시

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라고 하고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두 가지 교회의 표지들 중의 하나인 말씀의 전파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가시적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거나 그 유지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순수한 근본적인 교리의 변질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 참고문헌

- 길자연, 강용산 편저. 『찰스 하지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 김기홍.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아멘서적, 1992.
-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1541)과 ‘취리히 합의’ (1549)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3집 (2005년): 207-228.
- 배광식. 『장로교 정치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8.
- 서기행 · 홍정이 편저. 『한국장로교회의 합동운동』. 서울: 도서출판 새한, 2009.
- 최홍석. 『교회론』.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 황정욱. 『장로교회사 I: 개혁파 교회의 역사와 신학』.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 Ahlstrom, Sydney E.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 신복윤 · 이종성 ·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下)』.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초판]』.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 Hodge, A. A. *The Confession of Faith*.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869]1961.
- \_\_\_\_\_. *The Confession of Faith*.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3 vols. 1871-1873.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73.
- \_\_\_\_\_. *Systematic Theology*. 김귀탁 역. 『조직신학 I』.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Kim, Ezra Kilsung. “J. Gresham Machen’s Doctrine of the Church.”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 Longfield, Bradley J.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이은선 역. 『미국장로교회 논쟁』. 서울: 아가페, 1992.
- Machen, John Gresham. *Christianity and Liberalism*. New York: The Macmillan Co., 1923.
- \_\_\_\_\_.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김길성 역. 『기독교와 자유주의』. 고양: 크리스찬출판

사, 2004.

Stonehouse, Ned B.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Grand Rapids: Eerdmans, 1954.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Wells, David.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A History of Its Modern Develop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 국문초록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구프린스틴 신학자들의 교회론이 칼빈주의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찰스 하지와 존 그레스앰 메이첸 같은 신학자들의 교회론은 존 칼빈의 교회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찰스 하지와 메이첸의 교회론을 포함한 구프린스틴 신학자들의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교리적 순결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시적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가시적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네바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사역을 위하여 그의 최선을 다했다. 또한 그는 지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전체 개신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에큐메니칼 신학자”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의 일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리적 정통을 희생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구프린스틴 신학자들로서 찰스 하지와 메이첸은 “참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불가시적 교회가 드러나는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포함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을 지지했다. 특히 그들은 목사들을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신조들에 서약하고 그들의 안수 선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교회론은, 신자들이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지만,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들 위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칼빈의 교회론과 본질적으로 같다.

주제어: 교회론, 교리적 순결, 교회의 일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칼빈주의와 구프린스틴 신학

## A Comparative Study in the Ecclesiology of Calvin and Old Princeton Theology

Hong, Chul  
Daeshin University

Today some scholars say that ecclesiology of Old Princeton theologians departed from Calvinism. For example, they argue that ecclesiology of theologians like Charles Hodge and J. Gresham Machen differs from that of John Calvin. But this is wrong argument.

In my judgment, Old Princeton theologians' doctrine of the church including that of Charles Hodge and J. G. Machen is the same as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Calvin asserted that the unity of the church should be based on the doctrinal purity of the church.

Calvi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visible church as well as that of the invisible church. He called the visible church "the mother of the believer". He did his best as the pastor for the ministry of the church of Geneva although he knew the visible church could not be perfect. Also, he strived to maintain not only the unity of the local church but also that of the entire Protestant church. Thus, he was called "the ecumenical theologian". However, he did not want to sacrifice doctrinal orthodoxy to enlarge the unity of the church.

Both Charles Hodge and J. G. Machen as Old Princeton theologian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visible church in which the invisible church as "the gathering of true believers" is revealed. Also, they advocated the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standards including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Especially they argued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including ministers should subscribe to the creeds and keep their ordination oath. Their doctrine of the church is the same as that of Calvin in asserting that the unity of the church should be based on the fundamental doctrines of the church although they should strive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church.

*Key Words* : Ecclesiology, Doctrinal Purity, Unity of the Church, Westminster Standards, Calvinism and Old Princeton Theology